

명인들이 걸어온 길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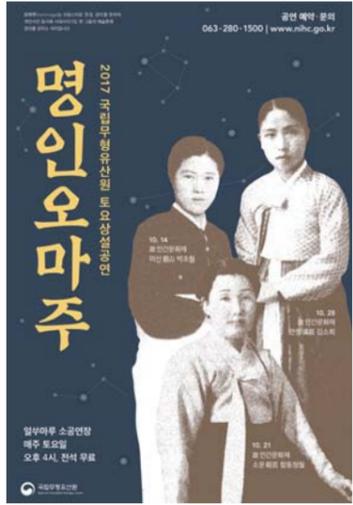
▶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일공연
'명인오마주' 열쑤마루서 무대

미산 박초월 · 소운 함동정월
민정 김소희 등의 예술세계 조명
제자들의 헌정공연으로 꾸며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김정남)은 작고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삶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14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유산원 열쑤마루공연장에서 선보이는 '2017명인 오마주'는 명인들이 평생 바쳐 이룩한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그들의 짧은 시절 소리부터 말년에 남긴 발자취를 담은 영상·사진·음반을 감상하는 자리다.

'명인 오마주'는 제자들의 헌정공연으로 꾸며진다. 14일에는 후덕한 성품으로 많은 제자를 이끌며, 예술학교 설립 등 후학을 위해 애쓴 미산(眉山) 박초월 작고 보유자(1917~1983·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어 21일에는 초기 산조의 맛이 담백 담긴 선율을 합 있는 가야금 연주로 펼쳐냈다

명인 소운(昭雲) 함동정월(본명 함금덕) 작고 보유자(1917~1994·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28일엔 제24회 서울 올림픽 당시 세계 수석역 인구에 해당하는 우리 소리로 감동을 선사한 만정(晩庭) 김소희(본명 김순옥) 작고 보유자(1917~1995·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엔 명인들의 예술정신을 고스란히 이어온 제자 안숙선, 신영희, 김정만, 조동달, 성애순 등이 참여하고, 고(故) 박초월의 제자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고(故) 함동정월의 제자 박재희(소설 '춤추는 가얏고' 저자)가 꾸미는 대담 등이 마련되어 명인의 회고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신의 분야에 평생을 바친 예술인을 기리며, 그들의 발자취인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을 꾸준히 전승하고 돌아보는 무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무료이며, 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주민들 손으로 만든 마을 소재 영화보자

임실 우리마을영화제, 오늘부터
이틀간 작은별영화관서 개최

임실군이 후원하고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김정흠)가 주관하는 '제3회 임실군우리마을영화제'가 임실한마당 작은별영화관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우리마을영화제'는 마을을 소재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영화를 상영하고 제작자, 배우 및 관람객 모두가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 UCC대회를 임실사랑UCC대회로 확대 추진해 연령에 제한 없이 모든 주민이 관람할 수 있는 상영작으로 준비됐다.

첫날은 '내 나이가 어때서 할머니 유랑단' 단원들이 배우로 참여한 '할머니의

상장'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UCC대회에서 입상한 작품과 주민시네마스쿨에서 제작된 작품이 연달아 상영된다.

김정흠 회장은 "임실 사람들이 직접 제작한 마을영화를 상영하고 한데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고 품격 있는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민 군수는 "어느 대도시 못지 않게 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은 임실군민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영화제"라며 "우리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회 임실군우리마을영화제'는 누구나 무료입장이며 극장 상영작 외에도 마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상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문의는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644-0510)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경 기자

양희선 수필가 '응기' 은빛수필문학상 수상작 선정

"응기 빛는 과정 인생에 비교 분석 작법 작품에 형상화"

안골은빛수필문학회(회장 이종희)는 수필가 양희선(80) 씨를 '제3회 은빛수필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응기'다.

전일환(전 전주대학교 부총장) 심사위원장은 "응기를 빛는 과정이나 발표방법을 우리 인생에 비교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는 수필작법은 작품에 응글게 형상화되었다"면서 "집 뒤에 있는 장독대는 어머니만의 영역으로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향아리처럼 가슴으로

삭힌 어머니가 있고, 힘든 세월을 살아낸 어머니의 장소였다"는 재해석은 맛깔스런 수필의 맛을 한껏 발효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양희선 씨는 종합문예지 '대한문학'에서 수필부문으로 등단했다. 수필집으로는 '길 따라 풀길 따라' (2013년) 가 있다.

시상식은 11월 20일 오후 4시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열리며, 상패와 함께 3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이 주어진다.

한편 안골은빛수필문학회는 매년 안골노인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인 수필창작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은빛수필문학상을 시상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국립민속국악원, 14일 장지연 독주 무대



인간 내면의 감정 해금 선율로

국립민속국악원(박호성 원장)은 '장지연의 해금, 이리 해꽃'을 14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선보인다. 국악원 기악단 단원인 장지연은 이날 무대에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이해하며 소통하고 다가가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리 해꽃'을 비롯해 고 지영희 명인이 무용 반주 음악에 쓰였던 곡들을 합주용으로 재편성한 '경시대풍류', 경기시나위의 경쾌한 선율이 많으며 폭넓은 농현과 섬세한 주법 등이 많은 '지영희류 해금산조', 박오름 단원의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 상봉 대목', 영·효남과 서도지방의 민속음악 중에서 계면기락을 모아 엮모리장단에 맞춰 연주하는 '해금독주곡 쉼' 등 총 5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완주문화재단, 14~15일 '삼례, 다시 봄' 공연

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 전진기지를 담당했던 삼례 양곡창고를 중심으로 당시 농민들의 처절한 삶을 소리로 풀어내는 공연을 갖는다.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이 14~15일 양일간 오후 2시30분 완주 삼례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극은 일제의 토지 수탈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조그만 땅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 대북이 어릴 적 동무이면서 일본인 지주의 농장에서 마를 노릇을 하는 판수와 갈등과 얽혀 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덕구와 순덕의 애절한 사랑을 그리고 있으며, 새로운 봄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다.

이날 무대에는 김경화, 이용선, 김대일, 정승희, 이재학, 양혜원, 김현정 등 7명의 출연자들이 함께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엔 가야금과 피리, 태평소 등 우리 전통 기악이 신명나게 어우러진다.

한편 공연일 낮 12시부터 삼례문화예술회관 입구 주변에선 우석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춘기획단·완주 팀이 직접 기획한 모던 주막, 삼례 청춘 GO BACK 장터 등 다양한 퍼린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장 입구에서 나누어주는 쿠폰에 퍼린지 프로그램 체험 도장을 모두 찍어오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공연은 무료이다. /정해은 기자

덕유산 설천봉서 치유되는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

덕유산사무소, 21일 소리음악회 개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오는 21일 덕유산 설천봉에서 탐방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연에서 즐거움과 편안함을 찾는 천상의 소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덕유산국립공원 핵심사업인 덕유(然)·인(인) 행복 네트워크 형성 일환으로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된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천봉 정상에서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진 대금, 하모니카, 재즈와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깊어가는 가을을 아름답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장소는 덕유산국립공원 설천봉 정상 천상의 소리 음악공원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설천봉을 찾는 탐방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부대행사로 전통차 시음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허영범 소장은 "이번 공연은 설천봉 정상에서 천상의 소리와 깊어가는 가을의 소리, 그리고 자연의 아픔을 함께 듣는 공연으로 참여자 모두가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063-322-3174~5 또는 덕유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deogyu.knps.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부드러운 임실 어린이치즈

언제나 부담없이 성장기 어린이 영양간식으로 알맞은 부드러운 임실 어린이치즈입니다.

Cheese For Kids

HACCP

대한민국 대표치즈 임실치즈,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농협이 또 하나의 신제품 "부드러운 임실 어린이치즈"를 선보입니다.

임실치즈농협 SINCE 1967

쇼핑몰 : www.ischeese.co.kr